

진격의 최태원... 전기차·5G·반도체용 웨이퍼시장 진출

(SK그룹 회장)



美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 완료
과감한 글로벌 기술투자 평가
고성장 영역 진입, 성장동력 확보
미국 내 추가 일자리 창출 등 기대

SK실트론이 지난달 29일 듀폰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SiC 웨이퍼) 사업부 인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인수금액은 4500억달러(약 5400억원)로, SK실트론은 앞으로도 관련 분야 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SK실트론은 이번 인수를 대내외 소재기술 자립 요구에 부응하는 과감한 글로벌 기술 투자로 평가했다. 미국 내



SK실트론이 인수한 듀폰 SiC 웨이퍼 사업부.

/SK실트론

추가 고용 창출도 예상했다.

SiC 웨이퍼는 고경도, 내전압, 내열 특성을 가진 제품이다. 에너지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기차와 5G 네트워크 등에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용 웨이

퍼 각광받으며 매년 수십 %대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분야다.

SK실트론은 듀폰 SiC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듀폰의 R&D 및 생산 역량과 주력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하

고, 고성장 영역에 뛰어들며 신규 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시에 본사를 둔 국내 유일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제조 업체다. 연매출 1조5429억원의 글로벌 5대 웨이퍼 제조기업 중 하나로, 전세계 300mm 실리콘 웨이퍼 판매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실리콘 웨이퍼 판매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대만 등 5곳에 해외법인과 사무소를 두고 있다. 특히 미국 법인은 인텔과 마이크론 등 현지에 있는 글로벌 업체에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SK그룹은 최근 3년간 북미지역에서 에너지와 화학, 배터리와 바이오 등 5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글로벌 거점화를 진행 중이다.

SK㈜가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사

크라멘토에 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 통합 법인인 'SK팜테코'를 설립하는 등 제약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뇌전증치료제 엑스코프리미 미국 FDA 판매 승인을 받기도 했다.

에너지 분야에도 힘을 쏟을 중이다. SK㈜가 2017년 유레카를 시작으로 브라조스와 블루레이저 등 미국 세일에너지 G&P 분야에 투자했고, SK종합화학도 2017년 다우케미칼로부터 에틸렌아크릴산과 폴리염화비닐리덴 사업을 인수하고 고부가 화학사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SK텔레콤도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와 5G 기반 방송 솔루션을 개발 중이고, 컴캐스트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게임 관련 공동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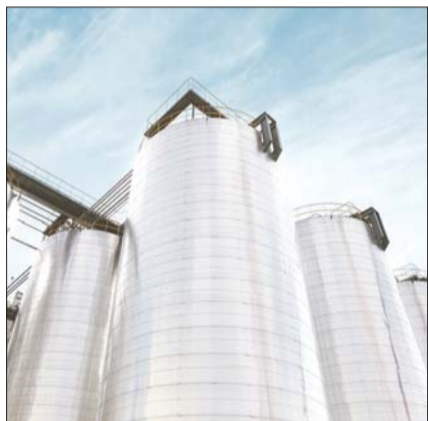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불황기를 체질 개선의 기회로 내실다지고 사업재편 '지속성장'

Advertorial Corner

금호석유화학그룹

합성고무·합성수지 등 사업 체질 ↑
안정적 경영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제품 다변화를 논의 중이다.

자동차 타이어 소재로 활용되는 금호석유화학의 고품 합성고무 역시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기능성 제품인 SBR과 NdBR 부문은 올해 글로벌 타이어 메이커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판매량을 확대하고, 차세대 제품 개발을 통해 고수익성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합성수지 부문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소재 경량화 및 전장 기술에 필수적인 차세대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호석유화학은 PS와 ABS, 엔지니어링 플라스틱(PS 및 ABS 알로이 제품) 등 가벼우면서도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의 첨단 소재인 CNT(탄소나노튜브)는 고무·수지 등 주력제품과의 융합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이차전지 시장에서의 수요를 점진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사업영역 전반의 체질개선도 진행한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올해 BPA, 에폭시 등 주력 제품의 수익성 중심 판매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주요 판매처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지속적인 신·증설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장다변화 전략을 모색하며 고정고객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호미시이화학과 금호폴리켄은 시장의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금호미시이화학은 국내 MDI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미주·동남아 지역 판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올해 주력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토대 마련과 사업영역 전반의 체질개선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나이지리아 올레드 TV 게임 대회.

/LG전자

LG전자, e-스포츠로 '올레드' 우수성 알려

나이지리아서 게임 대회 개최

LG전자가 게임으로 올레드 TV 우수성을 확인해준다.

LG전자는 지난달 29일 나이지리아 '에코호텔스&스위트'에서 'LG올레드 TV 게이밍 챌린지' 결승전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게이밍 챌린지는 나이지리아에서 열리는 가장 우승 상금이 많은 게임 대회다. 2018년부터 주요도시에서 시즌 6가

지 진행됐으며, 1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LG올레드 TV 게이밍 챌린지 지난 시즌별 우승자들이 한데 모여 왕중왕전을 펼쳤다. 최종 우승자에는 65인치 올레드 TV와 상금 100만 리라를 시상했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올레드 TV의 게이밍 성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언론과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2020 올레드 TV 신제품도 소개했다. /김재용 기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코로나19 확산에 中소 지원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지원에 나선다.

NBP는 현재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만3000여 곳(월 이용 요금 기준 2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서버 비용을 3~4월간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격근무를 지원하는 그룹웨어 '워크플레이스' 또한 무료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에 대한 수요와 서버 트래픽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며, NBP는 이번 프로모션으로 인해 최대 100억 수준의 서버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개학 연기로 비상이 걸린 학교나 학원에 온라인 강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IRIS)의 에듀넷 e학습터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교육 환경을 신속히 제공하고, 긴급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세부 지원 내역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헬로tv서도 '아이들나라' 만나보세요"

LG헬로비전 추가요금없이 서비스

LG헬로비전은 헬로tv에 LG유플러스 'U+tv 아이들나라'를 론칭한다고 2일 밝혔다. 'U+tv 아이들나라'는 LG유플러스가 2017년 첫 선을 보인 키즈 및 영유아 부모 맞춤형 플랫폼이다.

LG헬로비전은 자사 클라우드 기반으로 셋톱박스 사양에 관계없이 260만 명의 전체 디지털방송고객에 아이들나라를 제공하는 한편, 기술 개발 시기도 단축했다. 향후 LG유플러스도 LG헬로비전의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헬로tv 디지털방송 이용자는 이날부터 추가요금 없이 아이들나라의 핵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안드로이드 UHD 셋톱박스 이용자는 웅진씽크빅과 협업해 1000여 편의 어린이 필독도서를 담은 '웅진북클럽TV', 상업 광고와 유해 콘텐츠를 차단한 '유튜브키즈'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올 하반기 2차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기술 기반 콘텐츠를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LG헬로비전은 아이들나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전방위적 영업 활성화 체계를 마쳤다. 24개 SO 현장에서 지역 거점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영업·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3월 개학 시즌에 맞춰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